

#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종료보고서

2018년 9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종료보고서』(Bridge Malawi Project Report)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독립 출판물로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인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 등은 특정 국가나 영토, 도시, 지역,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획정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는 아래 2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갖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공동 발간



## Bridge Malawi Project Report 바로가기

본 보고서는 2018년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종료보고서(Bridge Malawi Project Report)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위 QR 코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본부 브릿지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편번호 04536  
이메일 | sdgs.kncu@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

한국어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1  
펴낸이 | 한경구  
감수 | 김승혜, 김지현, 서정아, 주준호  
번역 | 알바트로스 김용범  
디자인 | 보더랩 김기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ED-2021-RP-10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함

## 목차

<b>I. 서문</b>	03
<b>II. 배경</b>	04
1. 국가 개요	04
2. 말라위 교육 현황	04
<b>III.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개요</b>	08
1.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소개	08
2. 말라위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소개	12
3.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 소개	12
<b>IV. 성과</b>	13
1.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역사	13
2. 양적 성과	15
3.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프리카 연합 의제 연계	16
4. 지역학습센터의 시사점과 성과	17
<b>V. 교훈</b>	27
<b>VI. 감사의 말씀</b>	32
<b>◆ 부록</b>	34
1.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명단	34
2. 인터뷰	35



## I. 서문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2010년 10월 시작되어 2018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는 말라위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 4)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비형식교육 분야에서 지역사회 주도 개발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 CLC)를 설립해 풀뿌리 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 지도자들이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만들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정부기구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한국의 청년 활동가들도 현지에 파견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3년 10월 1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와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MNCU)간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이후 2014년 지역학습센터가 설립되어 수혜를 받는 지역사회와의 직접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역학습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영유아발달 수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해와 수리 능력을 보충하고자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에 대한 수업료 지원, 성인 대상의 문해수업과 직업기술 훈련이 포함된다.

## II. 배경

### 1. 국가 개요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북서쪽으로는 잠비아, 북동쪽으로는 탄자니아, 동쪽, 남쪽, 서쪽으로는 모잠비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말라위 호수가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에 접하는 말라위 동쪽 경계선의 3/4을 차지한다. 말라위라는 이름은 서기 10세기 전 이 지역에 처음 거주한 난자(Nyanja)족이 세운 왕국의 옛 이름인 마라비(Maravi)에서 유래했다.

현재 말라위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연간 인구 성장률은 2.9% 정도이다.<sup>1</sup>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는 45.1%, 15~64세 인구는 52.2%, 65세 이상 인구는 2.7%를 차지하며<sup>2</sup>, 출생 시 기대 수명은 63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노동력이 없는 피부양자 대비 생산인구의 비율로 정의되는 생산연령인구의 총 부양비율은 91.4%로<sup>3</sup>,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매우 높다. 하루 3.10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 비율도 87.60%에 달한다.

### 2. 말라위의 교육 현황

#### 영유아발달 및 취학전 교육

젠더아동장애사회복지부(MoGCDSW)는 영유아발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0-5세 아동의 영유아발달서비스 이용률은 2000년 2.63%에서 2017년 45.6%로 증가했지만<sup>4</sup>, 대부분의 영유아발달센터는 여전히 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영유아발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했고, 나아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동 보호 및 보건의 상태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실시된 영유아발달지수(ECDI)에 대한 연구<sup>5</sup>에 따르면, 2014년에는 영유아발달지수가 59.8%로 나타나 말라위 아동의 약 60%가 정상 발달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아와 남아의 영유아발달지수는 각각 64%와 56%로, 여아의 영유아발달지수가 남아보다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말라위 아동의 89.1%는 신체 발달 측면에서, 71.4%는 사회 및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79.9%는 조기 학습 측면에서 정상 궤도에 올라있다. 그러나 문해력과 수리력에 있어서는 17.2%만이 능숙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말라위 아동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브리짓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학습센터에서 영유아발달 활동이 진행되는 점, 브리짓 국가위원회에 젠더아동장애사회복지부가 참여하는 점 등은 프로젝트가 말라위 정부의 영유아발달정책에 잘 부합함을 보여준다.

#### 정규 초등교육, 방과후 교육 및 학력보완 기초교육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교육국은 말라위의 정규 초등교육을 담당한다. 2015/16년의 교육 관리 정보 시스템(EM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했을 때, 정규 초등교육에 등록된 총 인원은 약 490만1000명 정도이다. 초등교육의 마지막 학년인 표준 8학년까지의 진급비율은 32.5%(남학생 36%, 여학생 29%)로<sup>6</sup>, 이는 학령기 아동의 상당수가 제시기에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높은 유급률과 중도 탈락률 등으로 짐작된다.

2016년에는 초등교육(표준 1~8학년) 평균 유급률이 23.4%(남학생 24.1%, 여학생 22.7%)로 집계되었다.<sup>7</sup> 학년별 유급률로는 1학년이 28.8%(남성 29.5%, 여성 28.1%)로 가장 높았다. 낮은 이수율은 또한 아동의 학교 중퇴를 그 원인으로 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중도탈락률은 약 4.8%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당해 총 등록 학생 중 약 23만 5000명의 학생이 중퇴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말라위 전역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이 약 44%에 이르렀다. 정부는 또한 학교를 중퇴한 아동이 기초교육을 받고 정규학교로 편입하거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평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보완 기초교육(CBE)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각 지역사회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정규 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방과후 교실을 개설할 것이 권장된다.

브리짓 말라위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업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1)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unesco.org/en/country/mw>

2) 유엔 통계국

3) <http://countrymeters.info/en/>

4) 4차 통합가구조사 (2016-2017), 3차 통합가구조사 (2010-2011)

5) 영유아보육 및 발달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 연구 (2011-2015)

6) 교육과학기술부 (2017). 2015/16 교육운영정보시스템. 교육운영정보부, 릴롱웨.

7) 상동

## 성인문해 및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말라위 시민교육문화지역개발부 산하의 국립 문해 및 성인교육센터(NCLAE)는 성인문해 프로그램의 시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에 따르면, 2016년 말라위의 학교 밖 청소년은 41만 70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15-24세 인구의 문해율은 72.94%(남성 72.49%, 여성 73.39%)로, 절대 수치로 보면 15-24세 인구 중 100만 명(96만 158명)에 가까운 이들이 비문해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문해율이 73% (남성: 81%, 여성: 66%) 정도로 나타나 8, 15세 이상 인구 중 비문해 인구가 350만명 정도 존재함을 추산할 수 있었다 9.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15세 이상의 남녀의 문해율은 65%에서 73%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체와(Chichewa)어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산하의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전국에 약 1만 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센터의 학급당 학습자 수는 평균 25명 정도이다. 또 영어를 가르치는 센터도 1,633개 가량 존재하며,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성인 문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10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받고 문해 시험을 거쳐 문해력을 갖추었다는 판정을 받는다.

지역사회개발국(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은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된 지역학습센터의 개념을 채택해 비형식교육과 기타 생계 활동을 통합한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 직업교육훈련

말라위에서는 노동청년스포츠인력개발부(MoLYSMD)가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Technical, Entrepreneuri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EVET)에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은 201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접근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말라위 정부는 2015년 지역기술대학 (Community Technical Colleges)에도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을 도입해 그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말라위에서는 지역기술대학 외에도 여러 지역기술개발센터(Community Skills Development Centre)가 운영되고 있다.

말라위의 고등교육기관은 수용 인원이 크게 제한적이라, 중등교육을 마친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말라위에는 7개의 공립기술대학이 있는데,

이 중 4개 대학은 정부 소유로 운영되고, 다른 3개 대학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공립기술대학 외에 사립기술대학도 존재하나, 이를 고려하여도 대학의 연간 총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되지 않기에 증가하는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말라위의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은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 기관(TEVETA)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 부문의 선행학습인정(RPL) 지침이 곧 개발되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인정 시스템은 대학 밖에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의 자격 인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들에게 형식교육에 등록할 기회를 주기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국(Department of 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이 브릿지 국가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노동청년스포츠인력개발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에 협력하게 되었다. 또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가운데 한 곳(나미양과 지역학습센터)에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교육과정과 평가과정을 개발할 수 있었다.

8) 4차 통합가구조사 (2016-2017)

9) 4차 통합가구조사 (2016-2017), 3차 통합가구조사 (2010-2011)

# III.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개요

## 1.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소개

### 근거

현재 말라위의 형식교육 시스템은 모든 국민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했다. 말라위 아동의 영유아발달지수는 문해력과 수리력에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정규 초등교육에 있어 마지막 학년까지의 이수율도 낮다. 학생들의 유급률과 중도 탈락률, 비문해율, 부양비율(dependency ratio)도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

말라위는 형식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형식교육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빈곤 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은 형식교육을 받더라도 대다수가 유급되거나 중퇴하게 되며, 형식교육 과정을 마치는 경우에도 적절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읽기, 셈하기, 생활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숙련도 쌓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된다.

말라위 정부는 명확한 정책 체계와 계획안을 갖고 있으나, 제한적인 인적, 재정적 자원으로 인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형식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다목적 지역학습센터의 설립을 통한 비형식교육 증진을 꾀하며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떠올랐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8개 국에서의(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르완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웨) 프로젝트 중 하나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 접근성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협력국 내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2010년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이후 영유아발달과 문해 및 직업기술 교육에 중점을 둔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 목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라위의 형식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농촌 및 교외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실행되었다. 지역학습센터는 영유아발달 수업, 방과후 수업, 성인문해 수업 및 직업 훈련 수업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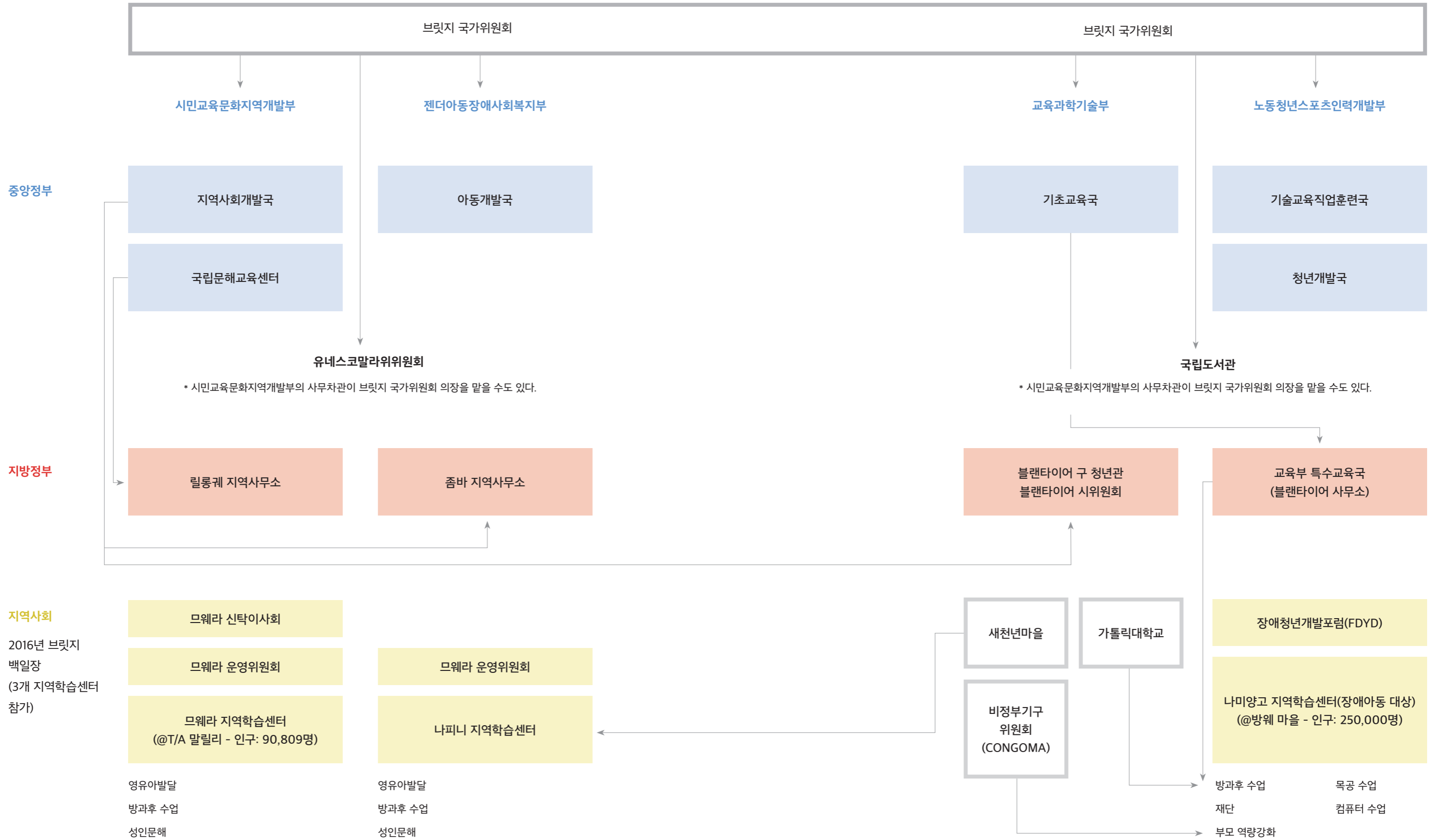
### 원칙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2016년에 릴롱게에서 개최된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Bridge Africa Conference)에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여러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지속가능성, 주인 의식, 자립’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MNCU)는 관련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지역학습센터의 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강력한 지역사회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지역학습센터의 모든 활동은 말라위의 국가 교육 전략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며,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은 개별 활동 계획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M&E)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 지도부와 지역사회는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구상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했다. 이처럼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지역학습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주인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학습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교육 활동 참여를 촉진했는데, 이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말라위 정부의 초등학교 개선 프로그램(PSIP)과 크게 일치한다.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협력을 보장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 기간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간의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다. 해당 협력은 양 위원회가 2013년 10월 18일 서명한 양해각서에 기반했는데, 5년 기간의 양해각서는 이후 2018년 10월 18일에 종료되었다.



## 2. 말라위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소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3개소는 농촌 지역사회의 비문해율을 줄이기 위해 교수 학습자료의 제공과 지역 지도자,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사의 역량 개발 등에 힘써왔다.

말라위에 있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3개소 모두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므웨라, 나피니 센터에서는 성인문해(치체와어 및 영어) 수업, 영유아발달(ECD) 수업과 방과후 수업이, 장애인 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나미양고 센터에서는 직업 훈련과 방과후 수업이 제공되었다.

므웨라 지역학습센터와 나피니 지역학습센터는 지역사회 주도 센터 관리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두 센터 모두 마을 촌장이 센터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센터가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한다.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피니 지역학습센터는 옥수수 공장을 설립했으며, 므웨라 지역학습센터는 소득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3.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 소개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BNC)는 여러 부처와 부서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주인인식, 독립성을 보장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시민교육문화지역개발부, 교육과학기술부, 젠더아동장애사회복지부, 노동청년스포츠인력개발부, 국립문해성인교육센터, 국립도서관서비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들이 말라위의 교육 전략 및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지역사회개발국장인 사와사와(Sawasawa)씨의 설명에 따르면,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1)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정책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 (2) 다양한 정부 부처 인사들의 교류를 촉진해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말라위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이자 기초교육국장 대행인 시망고(Simango)씨에 따르면, 위원회의 또다른 중요한 역할은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실행을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 IV. 성과

### 1.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역사: 2010-2018년 주요 활동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말라위의 지역 NGO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통해 발라카(Balaka)에서는 리원데(Liwonde)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헬프 말라위(H.E.L.P Malawi), 블랜타이어(Blantyre)에서는 아이세(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청년구상, AYISE), 좀바(Zomba)에서는 말라위 스카우트 협회 (Scouts Association of Malawi)와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후 NGO의 행정 비용 지출로 인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이 파악되어, 지역사회가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토록 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NGO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근무했던 한국인 프로젝트 활동가들 역시 해당 지역사회에 직접 파견되게 되었다. 이들 프로젝트 활동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지역 사회와 함께 문해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사업 초기에는 지역의 문화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활동가들이 곧바로 문해교실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들은 먼저 해당 지역사회에서 1~2년간 생활하면서 지역의 생활방식, 문화, 교육 수요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후 프로젝트 활동가들이 작성한 수요평가를 바탕으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실행되는 현재의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 확립되었다. 현재 말라위에는 세 곳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리쿠니의 므웨라 센터, 블랜타이어의 나미양고 센터, 좀바의 나피니 센터)가 존재한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말라위 오지에 지역학습센터를 세워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했다.

2016년은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전환점이 된 해로,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협력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NatComs)들은 남남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학습 효과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극대화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후 남남협력에 관련한 이러한 합의가 도출된 결과 말라위 릴롱웨에서 2016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16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를 포함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협력국가위원회 사무처에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공식 파견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실행 과정 중 프로젝트의 기획 및 구현, 지역학습센터 세 개소 운영의 계획과 개발, 프로젝트 활동 정기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이행에 있어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협력해 활동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주민의 주인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두 국가위원회 간의 위임 조건에 따라 2016년부터는 프로젝트 자금을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이에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



- 2010

  - 한국 활동가들의 마을 파견
- 2011

  -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개관
- 2013

  -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 개관
- 2014

  -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개관
- 2015

  -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로의 프로젝트 매니저 파견
  - 문해 교재 1만 9000권 인쇄 및 배포
- 2016

  - 2016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 개최(릴롱궤)
  - 문해 교재 1만 1000권 인쇄 및 배포
- 2017

  - 문해 교재 1만 1000권 인쇄 및 배포
- 2018

  -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1단계 이관

## 2. 양적 성과

연도	센터	교육활동 접근				교육의 질 향상	
		영유아 발달	방과후 수업	성인문해	직업기술 훈련	훈련받은 교사 수	인쇄/배포된 교재 수
2010	-	-	5	-	-	-	-
2011	-	51	1,540	376	196	7	750
2012	-	0	229	24	61	0	0
2013	나피니	80	0	0	0	2	71
	나미양고	0	10	0	0		
2014	나피니	70	200	57	8	89	2,225
	나미양고	0	40	100	0		
	므웨라	0	0	100	100		
2015	나피니	60	200	35	0	100	19,032
	나미양고	42 (장애아동)	0	0	38		
	므웨라	0	0	38	0		
2016	나피니	120	820	43	0	57	11,000
	나미양고	0	218	0	71		
	므웨라	222	472	101	0		
2017	나피니	120	840	103	0	10	11,000
	나미양고	0	326	0	46		
	므웨라	206	485	72	0		
2018	나피니	64	437	60	0	46	0
	나미양고	0	255	0	0		
	므웨라	96	390	42	0		

### 3.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 아프리카대륙 교육전략(CESA) 16-25와의 연계

2016-2025년 아프리카대륙 교육전략16-25(CESA 16-25)은 포괄적인 10개년 대륙 교육 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번(‘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아프리카의 대응 전략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CESA 16-25를 통해 SDG 4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아프리카의 포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이전의 교육 전략체제 아래에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동 전략은 또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행위자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인 주체성을 발휘할 자유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 아프리카연합(AU) 의제 2063 -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를 위한 포부

- 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번영의 아프리카
- ② 범아프리카주의의 이상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대륙
- ③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존중, 정의, 법치주의의 아프리카
- ④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 ⑤ 강력한 문화 정체성, 공동 유산, 가치 및 윤리의식을 지닌 아프리카
- ⑥ 아프리카인,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과 청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발전을 주도하는 아프리카
- ⑦ 강하고, 통합되고, 회복력과 영향력을 갖춘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

2013년 시작된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은 아프리카가 2063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포부를 제시한다. 이 의제는 CESA 16-25와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큰 틀에서 일치하지만, 더욱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 의제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통합적인 투자를 통해 인구배당효과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영역의 과제에 특히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가) 인적자원 동원 및 아프리카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 (나) 개발을 위한 자립 및 재정 확보; (다) 모든 수준과 영역에서 유능하고 포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가와 기관의 중요성; (라) 정부와 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결과를 책임지는 책무 시스템 구축.

2016년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는 CESA 16-25 및 의제 2063에 맞추어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세 가지 원칙(지속가능성, 주인의식, 자립)을 채택했으며, 참여국들의 국가위원회 사무총장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 4. 지역학습센터의 시사점과 성과

#### 1) 영유아발달 (ECD)

므웨라와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부모와 보호자들은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발달 수업이 교육 개발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에 비해 더 자신감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주디스 윌리(Judith Willy)씨는 이제 세 살이 된 자신의 아들 스티븐(Steven)이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며 크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윌리 씨에 따르면 스티븐은 이제 알파벳을 읽고 외울 수 있으며, 수업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매우 영리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아이가 되었다고 한다.

“아이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집중력과 주의력이 좋아졌어요.”

다섯 살 난 이샤(Isha)의 어머니인 엘리자 랍케니(Eliza Lapkeni)씨 역시 므웨라 지역학습센터는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라며 큰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예전에는 수줍음을 타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이샤가 지역학습센터 수업에 참여하면서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성 있게 바뀌었으며 지적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샤가 이제는 본인의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녀는 지역학습센터를 다녔던 자신의 세 자녀가 모두 초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서, 덕분에 이샤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랍케니 씨의 꿈은 이샤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자라서, 나중에 차도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를 논하자면,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학습센터는 좋은 학습 환경과, 다른 많은 지역사회,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급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이 매일 등교할 동기를 부여했다.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영유아발달 수업

###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에서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프리실라 만자위라(Priscilla Manjawira)의 할머니인 메리 므코윌라(Mary Mkowila)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므코윌라 씨는 나피니 센터의 돌봄교사들이 프리실라를 잘 가르쳐 준다고 칭찬했고, 손녀가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내비쳤다.

“우리 손녀는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 이야기로 보냅니다.  
저는 우리 손녀가 나중에 다른 나라로 여행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봄교사 중 한 명인 머시(Mercy)씨는 지역학습센터에서 받는 수당으로 현재 표준 4학년 과정을 밟고 있는 자녀의 학비와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역학습센터가 없었다면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므웨라와 나피니 마을은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영유아발달 수업을 진행할 교실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으며, 2009년부터는 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수업을 제공해 왔다. 이제 이 두 마을은 영유아발달 수업을 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말라위에 위치한 대부분의 센터에서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성과이다.

## 2) 방과후 수업

###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므웨라 마을은 방과후 수업이 마을의 교육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기쁜 소식을 보고해 왔다. 므웨라 지역학습센터의 센터장은 “방과후 수업 도입 후 대부분의 학습자가 시험에 합격해 주변 학교의 유급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한 여러 학교의 학습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독려하는 기능도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학습센터의 교사 연수는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방과후 교사인 자클린느 키산제(Jacqueline Chisanje)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교사 연수를 제공한 센터에 고마움을 표했다.

“많은 것들이 좋아졌고, 이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방과후 수업

## 나파니 지역학습센터

나파니 마을의 촌장이자 지역학습센터의 대표인 물리마(Mlima)씨는 지역학습센터가 지난 2010년 설립된 이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협력을 독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고 보고했다.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 마을의 모든 지도자와 촌장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방과후 수업에 보내도록 독려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또한 농장에 무료 노동을 제공하면서 지역학습센터의 소득 창출 활동을 돕는 등 센터를 지원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이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지역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방과후 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주변 초등학교에서 온 표준 1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7/2018 학년도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는 1학기에 470명, 2학기에 428명, 3학기에 428명이었다. 센터를 거쳐간 한 학습자, 메모리 만자위라 (Memory Manjawira) 씨는 2010/11년에 지역학습센터학습에서 방과후 수업을 들었고, 2014/15년에는 학습센터에서 교사로 일한 수당으로 간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러 이 센터에 왔어요. 센터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는 방과후 교사가 되었죠.”

지역사회는 지역학습센터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칙을 세웠으며, 마을 지도자와 촌장이 이러한 부칙을 집행하였다. 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마을 구성원들이 합의해 결정한 벌금을 부과했다.

##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학습센터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부모 교육을 실시해 자녀를 더 잘 양육하는 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마을의 장애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들은 이제 집 밖에서 또래들과 사회적 교류를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학부모와 실시한 면담은 이들 장애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이 속한 가정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한 장애아동의 학부모 주디스 나위타(Judith Nawita)씨는 센터의 교육이 아이가 적절하게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예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아이와 보내야 했던 자신에게도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밖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집에 가둬 놓고 나가야 했어요.”

12세의 초등학생인 키소모 카말라(Chisomo Kamala)는 2012년에 학교에 입학했다.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 다니기 전, 키소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지(Naizi)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등하교부터 문제가 되어 부모님은 매일 키소모를 등에 업고 학교에 가야 했었다. 지역학습센터 덕분에, 이제 키소모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키소모는 학교를 마치면 의사나 운전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키소모는 학교와 집에서 바워(bawo) 게임 - 구멍이 난 구부러진 나무 조각과 돌을 이용한 전통적인 수학 게임 - 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간질을 앓고 있는 18살 엘렌(Ellen)은 현재 초등교육을 받고 있다. 엘렌은 2015년에 치구물라 (Chigumula)에 있는 캄부쿠(Kambuku) 초등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시작해 표준 4학년까지 마쳤지만, 이후 장애로 인해 학교에 계속 다니지 못하고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 등록했다. 그녀는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 등록하기 전에는 자신이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엘렌은 회계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고, 나중에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다.

교사들에 따르면, 지역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은 아동뿐만 아니라 강사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교육 기관에서 기초수업 강사로 2년간 근무한 캐롤린 몰렘바(Carolyn Mlemba)씨는 지역학습센터에서의 근무가 자신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3) 성인문해

### 므웨라 및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성인 문해교육에 등록한 여성 대부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현지 모국어 과정을 수료한 일부 학습자들은 나아가 영어 수업에도 등록했는데, 이러한 영어 수업은 학습자의 독해력을 더욱 증진해 학습자가 농업과 보건 등 기타 학문 분야의 보다 복잡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또한 치체와어로 제작된 문해후(post-literacy) 책자의 영문 번역을 지원했다.

학습자들은 기초 문해력을 습득한 후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기본 생계를 지원할 수 있었다. 수료생 중 일부는 마을저축대부조합을 결성해 회전 기금을 조성하고 조합 회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다.

## 성인 문해 프로젝트의 전반적 성과

- \* 치체와어 및 영어 입문서 구입 자금 지원
- \* 문해후교육을 위한 영어 도서 인쇄 지원
- \* 강사 교육
- \* 강사 수당 지급
- \* 성인문해교실 건물 건립
- \* 강사 포상금 지급
- \* 성인문해블록(literacy block) 구축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문해교육 수료생 중 일부는 지역학습센터에서 습득한 문해력으로 여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핵심 직책을 맡게 되었다. 성인문해교육 수료생들은 또한 자녀의 읽기, 쓰기, 수학 학습을 지원하면서 학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자녀의 학업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추만 느디 모요』(Chuman ndi Moyo) 입문서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음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 위생: 개별 가정에 변기와 쓰레기통과 같은 위생 시설을 설치하는 법을 가르친다.
2.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리: 학습자들에게 자연 보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나무를 심도록 권장한다.
3. 가족 계획 서비스 강화: 여성들에게 가족 계획 서비스 이용의 이점에 대해 홍보한다.
4. 영양 지식 강화: 가족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5. 성평등과 형평성: 가족 내 다양한 역할과 책임의 실천에 있어 성평등을 증진한다.
6. 인권: 지역사회가 개발 활동을 요구하고 활발히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다.

## 4)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TEVET)

###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의 향상을 핵심 우선순위로 하는 말라위 정부의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기여했다. 장애를 가진 학습자 모두가 전문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장애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 친화적인 화장실과 장애 학습자를 위한 교실을 건립해 방과후 수업과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을 제공했고, 나미양고와 주변 지역의 수많은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개소 당시 11명의 학습자들로 시작한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는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교육 혜택을 주었다.

30명의 학습자가 재봉 과정을 이수해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 재봉 기술을 습득했다. 이중 4명은 현재 전문 재단사로 취업해 일하고 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재봉 교사 중 한 명인 치소모 느양아마(Chisomo Nyang'ama) 씨는 인터뷰에서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의 가시적인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느양아마 씨에 따르면, 청각 장애를 가진 5명을 포함한 30명의 재봉수업 수강자들은 대부분 드레스, 치마, 앞치마와 같은 여러 옷을 만드는 데 능숙하며, 그렇게 만든 옷을 팔아 돈을 버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현재 25세가 된 재봉수업 수강생 캐롤린 칼리마(Carolyn Kalima) 씨는 인터뷰에서 재봉수업이 자신에게 꿈을 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1년간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서 공부한 캐롤린 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만 해도 장애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본인의 기술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며 재봉수업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까운 미래에 양복점을 열고 다른 장애인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서 직업교육 및 기업가훈련의 일환으로 제공된 재봉수업

이외에도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며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가 지도에 나타나는 쾌거가 이루어져, 이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2017년에는 한 단체가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를 방문하고 시추공을 기증해 센터와 주변 마을이 물을 공급받는 막대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F. 칼리마(F. Kalima)씨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장애아동들도 자신감을 갖고 다른 아동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나미양고 지역에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가 기여한 점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교실 건물과 장애인 친화적인 화장실이 건립되었다. 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공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수업에 참석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다른 기부자들도 끌어들이었는데, 기부자들 중 한명은 심지어 2017년 식수를 끌어올릴 시추공을 뚫어 주기도 했다.

### 나미양고에서의 성과

- ⊙ 재봉수업이 도입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가 증가했다.
- ⊙ 직업교육훈련 학습자 대부분이 옷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었다.
- ⊙ 학습자를 위한 교실 건물과 장애인 화장실이 건립되었다.
-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인식 및 역량이 개선되었고, 외출 시 자녀를 집에 가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 ⊙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 대부분의 학습자가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 ⊙ 교사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가 지도에 표시되었다.
- ⊙ 주변 지역 장애아동 10명 중 8명이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습센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나미양고 마을은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 ⊙ 교사들은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에 대한 접근법을 알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장애 아동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 ⊙ 학습자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었다. 이들의 장래희망은 의사, 회계사, 운전사 등으로, 일부 학습자들은 양복점이나 고아원 운영을 꿈꾸기도 한다.
- ⊙ 치라줄루(Chiradzulu)현의 느굴루디(Nguludi) 지역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의 재학생들이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특히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이 이러한 인턴십 기회를 찾아 센터를 방문한다.

## 5) 소득 창출 활동

###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나피니 지역학습센터는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옥수수과 땅콩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며,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선집과 옥수수 제분소도 가지고 있다. 또 각 학습자들의 가정에도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 말라위 과차(MWK)를 기부할 것이 권장된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지역학습센터가 이러한 수익을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워크숍을 지원했다.

###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므웨라 지역학습센터는 아직 소득 창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 관리 워크숍과 요리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받고 있다. 이 중 요리 교육은 영유아발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향후 소득 창출 활동까지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한 현대그린푸드의 지원으로 건립된 구내식당 건물을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더해 이러한 소득 창출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①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옥수수 제분소  
② 현대그린푸드의 지원으로 건립된 므웨라 지역학습센터 구내식당

## V. 교훈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프로그램/프로젝트 기획; 풀뿌리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개입; 공공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투명성과 책무성; 지역사회 지도력 향상 및 동기 부여; 자원 봉사자의 참여; 지역 사회 공공기반시설 건설; 북남 협력;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효과적 변혁전략; 비형식교육 실행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영역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다.

### 프로그램/프로젝트 기획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해당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효과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여러 정부 부처, 부서 및 기관(MDA)이 진행하는 다양한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예: 영유아발달, 방과후 수업, 성인문해 수업 및 직업교육훈련)을 하나의 지역학습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접근법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러 수요를 해결할 수 있었다. 브릿지 국가위원회 회의나 지역사회 역량 강화 훈련 및 모니터링 연습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 정부 부처,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촉진되고 강화되었다.

### 풀뿌리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세 지역학습센터는 풀뿌리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는 마을의 수장이나 촌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실행과 지속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사례는 지역 지도자들이 센터 활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 모델의 모범적인 예시이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으로는 (가) 지역 위원회에 지역학습센터를 등록하고, (나) 지역학습센터의 운영 및 책임 구조를 수립하고, (다)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할 시스템과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 이뤄지는 소득 창출 활동 역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도임이 입증되었다.

###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의 동원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의 활동과 운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훈련, 기술 지침의 제공, 그리고 정기 모니터링에 있어 공공기관의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협력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관리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다. 보통 부처 간 위원회에는 수석 서기, 국장, 기관장 또는 전문 기술 직원 정도의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말라위의 경우 공공 서비스 영역에는 전문가 수준의 인력이 부족하여, 부족한 인원이 업무시간 동안 과도한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가 수준의 공무원들이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최자가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통하여 간결하게 요점만을 담은 발표를 준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에 더해 활동을 계획하는 시점에서도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제한적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회의에 앞서 적절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모니터링

지역사회의 프로젝트 운영을 자주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누군가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추적하고 그 일의 질과 표준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주민 크리스티나(Christina)는 모니터링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모니터링이 부족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 투명성과 책무성 - 지역사회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증진

투명성과 책무성은 통합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는 시스템과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결과를 낳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서 사용된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적으로 도출된 지역학습센터 정관을 가진다.
2. 출석부나 근태기록부와 같은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을 갖춘다.  
(예를 들어,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교사와 직원들은 매일 학습센터에 도착하면 출근부를 작성해야 한다).
3.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일반 대중이 지역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일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습센터 개방 등의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 지역사회 지도력 향상 및 동기 부여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교훈 중 하나는, 전통적인 지배 구조가 약하거나(또는 전혀 없거나), 지역학습센터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동기를 가진 지도 세력이 없는 곳의 지역사회에는 거버넌스 구조를 설립하도록 돕는 것이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 청년 및 노인 자원 봉사자의 참여 - 인구배당효과의 활용

지역학습센터에는 시간을 내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청년 및 노인 자원 봉사자들이 등록되어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가끔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당이나 급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례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높은 이탈률을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한 자원봉사자는 일부 지역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무시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해진다고 밝혔다.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며 의욕을 꺾는 말을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는 은퇴한 이들이 자발적인 무료 봉사 차원에서 브릿지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이들 중 일부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이들의 거버넌스와 경영 및 공보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과 헌신적인 책무 수행은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 지역사회 공공시설 건설

말라위에는 교실, 다목적 건물, 화장실, 안전한 식수원, 책상과 같은 공공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수업이나 회의 등이 열리면 사람들은 대체로 야외의 맨땅에 앉아 활동에 참여한다.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건축 서비스의 제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부의 공적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거나, 수혜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가 직접 수행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역사회가 직접 조달을 맡는 경우 유연성, 적시 구현 및 낮은 조달 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책임자들이 꼼꼼히 확인 없이 조달 활동을 진행할 경우 구조물의 품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한 조달은 서비스와 시설의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수반되는 시간과 부대 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

### 북남 협력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청년 프로젝트 활동가와 매니저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고, 이들의 참여는 이후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뇌리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이는 북남협력이 지속가능발전목표 17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임을 시사한다.



###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효과적 변혁전략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물자와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에 단순히 역량 강화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습득한 새로운 역량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재정적 지원 없이는 충분하지 않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드러났다. 또, 지역사회의 변혁적 참여에는 지속적 연대, '스스로 살아나가기', 지역사회의 일상적 수요와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 및 인식과 이를 프로젝트 솔루션의 구상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지급된 혜택은 이들이 지역학습센터 업무에 더 헌신적으로 임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의 복지에도 기여했다.

#### 프로젝트 활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와 정부 공무원 간의 이메일

보낸 사람: 나피니 지역학습센터<naphiniclc@gmail.com>

받는 사람: 핸드릭스 사카<kajilas\*\*\*@gmail.com>

날짜: 2018-08-02,08:58 오전

사카 선생님께,

먼저 아침 인사 드립니다. 릴롱웨에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기 나피니에서는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쿠세리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원데에서의 연수 덕분에 노트북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MSCE 시험에 응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 : cosawas\*\*\*@yahoo.com<cosawas\*\*\*@yahoo.com>

날짜: 2018-08-04,08:57 오후

동료분들께,

우와! 훌륭합니다! CLC의 역량 강화의 혜택이 개인과 가족에게까지 돌아갔네요.

이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진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재교육 과정이나 새로운 분야의 훈련이 가능하다면 더욱 고무될 것입니다. CLC 방문도 또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비형식교육 실행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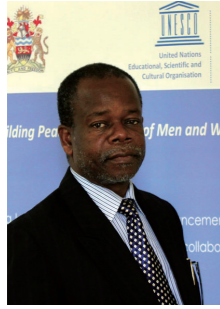
“모든 영혼은 소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특별합니다.” 이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이 한 말이다. 프로젝트는 나미양고 지역학습센터 인근의 방웨(Bangwe) 마을에 사는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이 곳의 장애아동들은 예전처럼 부모가 외출할 때 집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장애아동들은 또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 도서관 서비스 및 정보 통신 기술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도서관과 ICT 시설이 적절한 훈련 및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된다면 해당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인 개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기증과 교육 지원을 받은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덕분에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독서 문화가 구축되었다. 방과후 교실의 학습자로 시작해 청년 자원 봉사자가 된 학습자 한 명은 지역학습센터의 도서관 덕분에 지식을 넓히고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

## VI. 감사의 말씀

### 1.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엠마뉴엘 콘도웨(Emmanuel KONDOWE) 사무총장의 메시지



엠마뉴엘 콘도웨  
사무총장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아래서 두 국가위원회가 맺은 파트너십과 협력,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 학교 건물 건립, (나) 므웨라 지역학습센터에서의 기술훈련용 주방 (Skills Training Kitchen) 및 구내식당(카페테리아) 건립, (다) 학습 자료 제공, (라) 지역사회 지도자, 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사의 역량강화 훈련, (마) 지역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라위 지역사회를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또한 부처 간 정책 기구인 브릿지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했는데, 해당 위원회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을 동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년 2월, 말라위는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대한민국-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이 시행된 남아프리카 국가들, 즉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잠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들이 참가하였고, 해당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회의는 이후 남남 협력 증진의 시발점이 되어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점진적 학습 효과 증대를 촉진하였습니다.

저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비형식교육 개발에 있어 매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체적 교육 개발 접근법”, 즉 지역사회가 활동의 계획, 운영 및 모니터링에 주요 공공기관을 끌어들이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과 기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유망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말라위로 파견된 활동가들과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 청년들은 말라위의 여러 마을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환경적 어려움도 훌륭하게 견뎌냈고, 말라위 사람들의 마음에 한국인들이 청렴결백하고, 근면하며,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라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말라위를 지원해주신 한국 정부, 한국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의 메시지



김광호  
사무총장

교육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교육에서 소외된 말라위 오지의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해준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의 전문성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 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엠마뉴엘 콘도웨 사무총장님과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특히 그 실행 방식을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국가위원회 간의 협력 메커니즘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헌장」 제1조 제4항에 명시된 (국가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에서 지역, 소지역,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상호간에, (...) 특히 사업의 공동수립과 수행을 통해 협력한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잘 부합합니다.

「유네스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조정, 협의, 실행 및 평가의 주요 파트너가 되며, 유네스코의 이상과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동반자로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돌아봤을 때, 저는 두 국가위원회의 공동 프로젝트인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양해각서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가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부 내 관련 당국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말라위의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1단계는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이에 맺어진 우정이 더욱 굳건해졌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에 보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의 지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코모 콰비리(Zikomo Kwambiri).

1.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명단

이름	직책	활동기간
이승룡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10월 - 2012년 9월
박경리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10월 - 2011년 12월
김유정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10월 - 2012년 10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2013년 5월 - 2013년 12월
	프로젝트 매니저	2014년 3월 - 2014년 9월
김유선	프로젝트 활동가	2012년 2월 - 2012년 10월
민신혜	프로젝트 활동가	2013년 8월 - 2013년 12월
김호경	프로젝트 활동가	2013년 8월 - 2013년 12월
한지애(하나)	프로젝트 활동가	2013년 8월 - 2016년 1월
이보배	프로젝트 매니저	2015년 5월 - 2016년 5월
김은하	프로젝트 매니저	2016년 3월 - 2017년 3월
전예영	프로젝트 매니저	2017년 3월 - 2018년 10월

2. 인터뷰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한지애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활동가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나(지애)이고 나이는 28세입니다. 저는 2013년 8월부터부터 2년 반 동안 말라위에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활동가로 일하며 좀바(Zomba)시의 도마시(Domasi) 지역에서 나피니 지역학습센터를 담당했습니다.

Q.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평소 HIV/AIDS(면역결핍증), 기아, 빈곤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 활동을 하는 큰 비정부기구와 유엔 기관들의 광고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특정한 단면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아프리카를 방문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는 어떨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공식 국가만 54개가 존재하는 거대한 대륙이지만, 후에 저는 아프리카 대륙 내 여러 국가 사람들이 놀랍게도 공통된 문화와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활동가 모집공고를 보고 저의 호기심과 열정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Q.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제가 일했던 지역사회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특히 마을의 촌장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 반 동안이나 그러한 과정을 헤쳐왔고, 저는 정기 회의에 익숙해지는 데에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마을을 계속 발전시킬 사람들이라는 믿음 덕분에, 촌장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학습센터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촌장님들은 마을사람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동시에

그들 자신이 마을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촌장님과 교사들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Q.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 가지 말해주세요.**

**A.** 이전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또 다른 공여기관이나 협력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조건과 규칙에 따라 사람들을 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즉 마을 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이양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교육개발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다른 마을에도 영감을 주어 왔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와 그 대표자들(촌장, 교사, 행정가)은 지역사회중심의 배움이 가지는 가능성과 주민들에 대한 넓은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Q.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말라위 지역사회에 대해 한 말씀해주세요.**

**A.** Mulibwanji? Ndakusowani nonse. Ndatogoza kwambiri for your support and love.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무척 그립네요. 여러분의 지원과 사랑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과 힘을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은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그 사회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또 그 순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라위의 모든 지역학습센터의 건승을 기원하며, 곧 뵙기를 고대합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이 있나요?**

**A.** 마을에 이 모든 변화를 가져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함께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이러한 과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 매니저

전예영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매니저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 이름은 전예영입니다. 저는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약 2년간 일했습니다.

**Q.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저는 항상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고, 국제 개발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회 정책과 개발을 공부한 후에는 개발이라는 맥락 아래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일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공고를 봤을 때, 특히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비형식교육을 제공한다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크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 스스로도 평소 교육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나, 나아가 그 학습자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협력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Q.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의 다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함께 일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아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는 2017년 미시사를 주제로 열렸던 제3회 브릿지 백일장을 꼽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 개인의 역사나 마을의 역사에 대해 글을 썼고, 엄선된 수상자들은 시상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아이들과 여성들이었고, 부모나 남편에게 버림 받은 경험을 다룬 슬픈 이야기도 많았지만, 처음으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은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을 부정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행복해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수상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린 책이 출간 되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Q.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 가지 말해주세요.**

**A.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지역학습센터가 이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 증진을 위한 학습센터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녀들을 센터에 보내고, 비문해 성인들은 학습센터를 찾아와 문해교실에 참여하며, 그렇게 학습센터에 참여하게 된 주민들은 또한 다른 주민들을 학습센터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대신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습센터에서 뭔가를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Q.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말라위 지역사회에 한 말씀해주세요.**

**A.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말라위 지역사회의 따뜻한 환대와 협력,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학습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프리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함께 근무한 이들 지역학습센터 관계자들께서는 서류 작업으로 지칠 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분들의 열정이 프로젝트 1단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역학습센터를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이 있나요?**

**A. 저는 브릿지 프로젝트가 지역학습센터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삶에 진정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확신하며, 저에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 주시고, 협력기관이 더욱 강력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